

# 제조산업 종사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용식\*

한국서부발전 차장

김재홍\*\*

중앙대학교 교수

이일한\*\*\*

중앙대학교 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술과 연관성이 깊은 제조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핵심요인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았다. 특히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과 개인적 특성이 기회역량을 매개로 하였을 때 창업의도에 어떠한 유의미한 연관성을 설명해 줄 것인지 그리고 창업의도에 공기업의 기술개발지원사업(R&D)이 어떠한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제조분야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장치산업과 관련된 제조분야 중소기업 종사자 292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설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종 통계분석과 방정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 중 진취성과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인 내재적 통제 요인이 반복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실제 창업 이전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혁신성 또한 창업 전, 후로 구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핵심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중 진취성을 제외한 요인이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특성의 하위변수인 자기효능감, 내재적 통제, 모호성에 대한 인내 중 내재적 통제 요인만이 기회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기회역량의 하위변수인 기회인식과 평가는 모두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하위요인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기회역량의 매개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진취성과 내재적 통제 요인이 각각되었으며, 혁신성은 기회역량 중 기회인식만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기술개발지원사업(R&D)이 창업의도를 조절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은 실제로 창업이 일어나는 전, 후로 구분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조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기업가정신, 내재적 통제, 모호된 인내, 기회역량, 창업의지, 공기업

## 1. 서론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경쟁 구도의 심화, 저성장, 중국 경제의 리스크 확대, 저유가 시대와 글로벌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했다(Schwab, 2016). 기존의 산업은 앞서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새로운 시대에 접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파괴적 변화의 시대로 돌입한 세계’라고 지칭되고 있다.

창업가는 다른 이들이 혼란이나 혼동으로 여기는 곳에서

\* oksys1021@naver.com

\*\* Coolplus03@naver.com

\*\*\* lih2114@cau.ac.kr

기회를 찾고 “불확실성과 모호성의 깊고 어두운 협곡”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이다(Kurako, 2014). 혁신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인 잠재력을 위한 보다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며 기업가정신의 근본은 창업가의 체계적인 혁신의 실천이다(Druker, Harvard Business Review, 2009).

창업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국가별, 산업별, 창업단계별, 경영성과 등 목표 성과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 2020)에 따르면 창업 직전 창업자의 취업상태는 취업이 59.6%로 비취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 직전 기업 종사자가 창업을 실현한다는 맥락에서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제조산업은 기술지향성이 높은 산업으로 기술적 바탕(Technological Background)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며(Cooper, 1984),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R&D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중심이 되는 R&D 지원정책은 주로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정책은 주로 창업 이후 단계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수행되고 있는 반면, 창업 이전단계 즉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이전 단계에서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주제의 근원이 되는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연구과정들을 살펴보고 기업가정신의 핵심 하위 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대표적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요인으로 명명되는 자기효능감, 내재적 통제, 모호성에 대한 인내와 창업의도와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제조산업 산업군이라는 업종별 특수성을 중심으로 밝혀본다.

둘째, 본 연구주체인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의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기회 인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한다.

셋째,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공기업의 기술개발 R&D 지원정책을 조절효과로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란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창업가의 특성 요인들을 분석하여 제조업 창업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그리고 정부지원정책 하에 혁신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 II. 연구 배경

### 2.1 기업가정신

최근 사람과 사물간 구분을 넘어선 초연결성(Hyper-Connection)과 대유행병에 기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기업가(Entrepreneur)’를 정의한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Entrepreneurship)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처음 도입하였다. 그는 기업가정신을 ‘시장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은 혁신을 통해 차별화를 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혁신”을 강조하였다(김재홍, 2019).

Knight(1921)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미래를 위한 성공적 예측이 가능토록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Timmons(1994)는 기회에 중심에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적인 리더십을 활용하는 사고나 행동이라 하였으며, 현대 경영학의 대가인 Drucker(2004)는 항상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여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Stevenson(1983)은 통제할 수 있는 주변 자원에 제한되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창업가가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기업가정신은 위험과 도전의 관점, 가치창출 관점, 혁신과 자원의 효율화 관점, 기회추구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Morris & Lewis(1995)의 연구에 따라, 기업가정신은 기회의 포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창업가의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인 사고방식(Attitude)과 이에 따른 행동(Behavior)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초기 개념은 단일차원에서 시작되었다. Cantillon(1755)은 기업가정신을 위험감수성으로 정의했고, Schumpeter(1934)는 혁신성이라고 정의하였다(이춘우, 1999). 기업가정신은 주로 창업시 필요한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독립성, 열악한 창업환경 속에서 끊임 없이 문제해결을 하여 끈기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내력 등의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업가적 성향에 맞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업가적 지향성이란 기업가정신에서 기업가의 심리적

상태이기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기업가적 행태를 보이는 조직 수준의 성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3개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된다(Covin & Lumpkin, 2011).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 taking)은 각각이 독립된 변수로 연구되기도 하지만, 기업가적 성향(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의 구성요소로서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Rauch et al., 2009). 이밖에도 자율성과 경쟁적 공격성(Lumpkin & Dess, 1996), 집중성(Mintzberg, 1979), 자기개신(Zahra, 1993), 민첩성(강성일, 2007) 등이 있으나, 기업가정신은 앞선 3가지 행동적 특성으로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2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1970년대 후반부터 창업자에 대한 개인적 특성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돼 왔는데,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주로 심리적인 특성과 배경적인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McClelland 1961, Sexton & Bowman 1986). 1980년대 대표적인 연구자인 Gartner(1985)는 창업가를 이해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특성(성취욕구, 통제위치, 위험감수성), 배경적 특성(부모 직업, 연령, 교육), 경험(이전 업무 경험), 태도(직무 만족)를 제시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기업가정신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는데, McClelland(1961)는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를 기업가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창업가와 일반인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졌는데, Gartner(1989)는 이처럼 특정 성향을 이용하여 창업가와 일반인을 구분하는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들을 특질 접근법(Trait Approach)이라고 하였다. 특질(Traits)이란 개인의 행동에 대응하는 개인 내부특징(Internal Characteristics)으로서, 각 개인은 다양한 특질의 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질의 조합이 바로 성격(personality profile)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홍, 2019).

1980년대 이후 기업가정신을 심리적 상태가 아닌 행동(Behavior) 또는 행위(Activity)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증가하면서(Stevenson & Gumpert, 1985., Covin & Slevin, 1991),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Influential factors)로 이해되기 시작했다(Gartner, 1985; Brazeal, 1993; Hornsby et al., 1993; Krasniqi 2009; Chen et al., 2010). 인간은 심리적 작용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였으며(Bird, 1988), 구연

회(2006)는 심리적 특성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라는 주장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주로 인지(Cognition)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창업가적 인지(Entrepreneurial Cognition)는 기회, 기회창업, 기업성공에 관한 평가,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인간의 지식체계라 정의할 수 있다(Mitchell et al., 2002).

이러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통제위치(Locus of Control), 위험감수성향(Risk Taking Propensity)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Tolerance for Ambiguity)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Veciana et al.(2005), 박시사·강성일(2007)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창업 전체의 과정 중에서 창업의 첫 단계인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심리적 특성 이외에도 배경적 특성 역시 개인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이는 다시 통제가능 유무에 따라 세분화 되는데, 통제적 요소로는 연령, 성별, 형제자매관계, 가족내 창업가의 존재유무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학력, 사업경험, 정보의 평가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창업관련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 가능한 요인의 인정여부는 기업가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개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는 일반인과 기업가를 구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하였다(Cooper & Dunkelberg, 1987, Naffziger, 1966). 배경적 특성의 연구를 살펴보면 Gartner(1985)는 직무만족, 사업경험, 가족배경, 교육, 연령을 들었으며, Chen et al.(2010)은 개인의 문화적 전통, 가족배경과 교육환경을 들었다. Wang & Wong(2004)는 성별, 가족배경, 교육수준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aravan & O'Connell(1994)는 창업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적 특성에서 기업가정신이 관련 교육을 통해 유일하게 조절될 수 있음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내적통제(Locus of control), 모호성에 대한 인내(Tolerance for Ambiguity)에 대해 측정하고자 한다.

## 2.3 기업가의 기회역량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인 자세로

혁신을 주도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이다(김재홍, 2019).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개인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행동은 기회에서 시작된다(McMullen & Shepherd, 2006). 특히 창업가들은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비즈니스 컨셉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여 창업을 한다(Morris et al., 2002). 이와같이 기회인식과 평가는 창업자가 창업의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이며, 핵심이다. 기회인식과 평가는 창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능력(Ardichvili et al., 2003) 경쟁우위의 원천(Alvarez & Busenitz, 2001)이자, 창업교육의 중요한 구성요소(DeTienne & Chandler, 2004)이기도 하다.

## 2.4 중소기업 및 공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는 각종 중소기업 사업자를 총칭하는 개념이다(강성일, 2007).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의 규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중소기업기본법). 아래의 <표 2-5>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 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은 2014년 기준,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87.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시장지배력이 미미한 반면, 높은 독립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제한된 시장에서 제한된 고객을 상대하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데(강성일, 2007), 아래의 <표 2-6>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성 비교이다.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소비자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다수(Vital Majorities)로 인식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민화(2018)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피짜’를 완성해야 하는데 이에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제조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 제조산업과 기업가정신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자유방임주의가 전성을 이루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조정되던 경제는 성장의 한계를 보였으며, 이는 20세기(특히 1930-40년대)에 들어 공기업의 발달을

가속시켰다. 선진국 및 후진국 모두가 경험한 현상으로 영국의 공기업은 사회주의 정당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생디칼리스트’의 철학에서, 이탈리아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 기간 중 정부원조에 의한 사기업의 보호에서 시작되었으며, 전통적으로 공기업을 배척하고 있던 미국에서는 국가 방위와 30년대의 경제 대공황을 겪으며 공기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공기업은 세계적인 혁명과 경제적 독립이라는 국가적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의 산업발전 이전에 이르기까지 효과적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Public Enterprise)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사회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사기업과 같이 수익성을 추구하나, 사기업에서서 말할 수 없는 사회공공의 복리향상이라는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수입액 기준으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2019), 국내 공기업은 2020년 현재 총 36개로 시장형이 16개, 준시장형이 20개로 운영되고 있다(알리오-공공기관운영현황, 2020).

생산수단으로서 각종 대규모 장치를 이용해 정상적 생산을 하는 산업을 장치산업(Process Industry)이라 하는데(두산백과), 공기업 중 제조산업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장치산업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제외한 11개 기업이 있다(알리오-공공기관운영현황, 2000).

## 2.5 기업가의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창업과정의 첫 단계로 창업 실행 전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으로써, 기업가정신의 연구에서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Krueger et al., 1994).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초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창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며 첫 번째 단계라 하였다(Van Gelderen et al., 2005).

Shapero(1975)는 ‘창업이벤트(Entrepreneurial Events)’ 모델을 통해 개인이 가진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행동을 이해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실직, 이민 등과 같이 개인의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Life Event)는 개인의 선택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체적인 방안으로 창업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게 되며, 이러한 지각은 창업의지에 영

향을 미쳐, 결국에는 창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창업의도는 창업의 준비과정에 있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데 작용하며, 창업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시사·강성일, 2007; 박재환 외, 2011).

창업의도에 관해 Knight(1921)는 실업자가 증가하거나 구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며, Shapero & Sokol(1982)는 국가, 지역경제, 단체 등이 저조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창업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창업의도는 창업가의 개인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창업은 개인의 특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며(Greenberger & Sexton, 1998), 주변 환경이 창업에 얼마나 우호적인지 또는 위협적인지에 관한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들 평가는 자신이 그런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백효정, 2011).

창업의도에 관해 개인적 규범과 태도에 주목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Ajzen(1991)은 의도는 바라던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와 의향의 정도를 포착한다고 하였는데, 그의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이러한 개인의 창업의도 영향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수진(2015)은 그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주관적인 규범을 조사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 모두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Shapero(1975)은 창업시에 지각된 적성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개인이 선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체 방안으로 개인이 창업에 대해 지각하거나 인식하게 되어 이는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창업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지현(2010), 성장수(2011)는 각자의 연구에서 개인적 태도가 창업의도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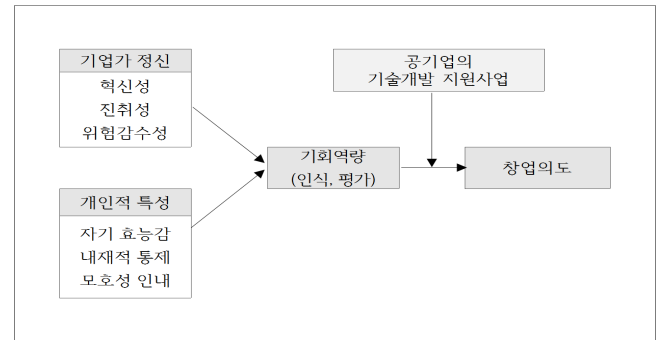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조분야 중소기업 종사자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기회평가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에너지공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 종사자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특성이 창업의도에 조절적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의 <그림 1> 제조분야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의도

결정요인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1: 혁신성은 기회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진취성은 기회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위험감수성은 기회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자기효능감은 기회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내재적 통제는 기회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모호성 인내는 기회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기회 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기회 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공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 3.2 자료수집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은 선행연구들과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으며, 에너지공기업과 관련된 국내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0년 4월 26일 부터 5월 11일 까지 약 16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총 292명에게 성실한 응답을 받아(회수율 91%) 표본 데이터를 정리하여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총 292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검토 결과 결측치나 불성실 응답이 존재하지 않아 전체 데이터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세부적인 분석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기업 관련 특성, 창업 경험 및 의지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크게 성별과 연령, 최종학력, 경력(유사 직종 근무경력 포함)으로 구분되었으며 기업 관련 특성은 기업분야, 기업의 매출, 기업의 성장단계 및 소재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여부로 구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창업 경험 및 의지 분석은 창업 경험 유무와 창업에 대한 계획으로 구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요인 분석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구성된 항목들이 하나의 변수로써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 타당성과 신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제거하고 총 10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요인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나의 변수로 각각 생성되었으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로서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였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가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해당 분석은 시장지향성인 고객지향성과 경쟁사지향성으로 구분되었으며, 매개효과 모형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로 활용된 변수들과 종속변수 간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차이를 이용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수준  $p < 0.1$ ,  $p < 0.05$ ,  $p < 0.01$  수준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과 AMO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 IV. 실증분석

### 4.1 자료 분석 및 평가

#### 4.1.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들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243명(83.22%), 여성은 49명(16.78%)이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41~45세가 65명(22.26%)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36~40세가 56명(19.18%), 51세~55세가 40명(13.70%), 31~35세가

(10.96%)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의 연령은 30~4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25세 이하가 8명(2.74%), 55세 이상이 21명(7.19%)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연령의 응답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의 학력을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응답자가 163명(55.82%)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대학원을 졸업한 응답자가 62명(21.23%), 전문대를 졸업한 응답자가 50명(17.12%),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응답자가 17명(5.8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응답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응답자가 91명(31.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20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응답자가 88명(30.14%)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5~8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응답자가 40명(13.70%), 8년~10년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응답자가 33명(11.30%)으로 높게 나타났다. 5년 이하의 경력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비교적 낮은 비중인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1.2 종사기업특성 분석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의 분야를 분석한 결과 기계산업에 속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136명(46.58%)으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전자 및 제어 산업에 속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61명(20.89%)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산업에 속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는 51명(17.47%)으로 나타났다. 기타 산업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총 44명(15.07%)으로 정보통신이나, 엔지니어, 법률, 화학, 토목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2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210명(71.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10억~20억 미만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44명(15.07%), 5억~10억 미만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24명(8.22%), 5억 미만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14명(4.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의 성장단계를 분석한 결과 성장기에 놓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126명(43.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성숙기에 놓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102명(34.9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의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

로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청남도가 78명(26.71%), 경기도가 75명(25.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로 3명(1.03%)의 응답자들이 해당 지역에 속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속한 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되어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30명(78.77%)으로 나타났으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2명(21.23%)으로 나타났다.

### 4.1.3 창업경험 및 의지 분석

응답자들의 창업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창업을 경험해 본 응답자가 87명(29.79%)인데 비해 창업을 경험해 보지 않은 응답자가 205명(70.21%)으로 나타나 창업 경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들의 창업계획 여부 및 시기를 분석한 결과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177명(60.62%)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창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115명(39.38%)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창업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8명(26.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1년~3년 미만 내 창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5명(15.41%)으로 높게 나타났다.

##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4.2.1 탐색적 요인분석

<표 1> 탐색적 요인 분석

구분	성분										고유 값	누적 분산
	1	2	3	4	5	6	7	8	9	10		
창업의도3	.900	.173	.111	.123	.128	.066	.148	.049	.114	.063	6.751	14.675
창업의도5	.878	.206	.147	.161	.119	.055	.118	.059	.132	.078		
창업의도6	.878	.195	.145	.144	.144	.049	.108	.070	.147	.113		
창업의도4	.860	.183	.161	.133	.188	.063	.142	.090	.159	.054		
창업의도7	.847	.173	.102	.203	.134	.101	.115	.073	.098	.127		
창업의도2	.844	.110	.087	.165	.129	.097	.145	.069	.098	.093		
창업의도1	.833	.146	.099	.172	.107	.013	.168	.027	.105	.036		
기회평가4	.198	.835	.069	.220	.008	.129	.113	.062	.088	.172		
기회평가3	.200	.801	.040	.268	.150	.098	.107	.112	.140	.112		
기회평가1	.261	.787	.207	.181	.162	.099	.086	.071	.096	.084		

기회평가5	.218	.758	.203	.209	.142	.068	.115	.015	.148	.047	4.109	33.344
기회평가2	.238	.745	.185	.343	.097	.086	.114	.163	.106	.062		
자기효능2	.167	.115	.787	.175	.151	.087	.198	.200	.123	.074		
자기효능1	.165	.115	.778	.135	.172	.096	.249	.169	.070	.081		
자기효능4	.150	.176	.727	.249	.159	.091	.182	.184	.213	.114		
자기효능3	.164	.195	.723	.231	.245	.083	.133	.179	.171	.050		
자기효능5	.198	.185	.707	.221	.167	.091	.185	.281	.209	.080		
기회인식8	.257	.343	.201	.743	.152	.108	.159	.078	.145	.114		
기회인식7	.274	.249	.226	.734	.158	.121	.200	.100	.089	.097		
기회인식9	.244	.421	.162	.700	.114	.085	.159	.140	.113	.097		
기회인식2	.229	.231	.281	.667	.227	.069	.220	.095	.161	.085	3.976	41.986
기회인식3	.239	.297	.251	.649	.099	.101	.170	.162	.090	.134		
기회인식10	.323	.420	.193	.630	.157	.095	.110	.144	.118	.141		
진취성4	.214	.133	.183	.102	.849	.147	.129	.041	.162	.052		
진취성1	.225	.116	.141	.104	.841	.155	.153	.050	.075	.068	3.725	50.084
진취성3	.189	.112	.181	.189	.788	.142	.112	.063	.285	.058		
진취성2	.170	.130	.203	.169	.753	.136	.166	.076	.251	.005		
혁신성3	.063	.058	.060	.032	.130	.897	.007	.086	.096	.065	3.546	57.792
혁신성2	.042	.073	.040	.170	.073	.897	.123	.043	.061	.014		
혁신성4	.136	.075	.079	.030	.129	.888	.037	.047	-.011	.066		
혁신성1	.049	.147	.110	.068	.115	.886	.095	-.013	.078	.021		
공기업 지원사업2	.208	.153	.180	.165	.157	.131	.817	.111	.158	-.015	3.255	64.870
공기업 지원사업1	.166	.103	.244	.185	.142	.083	.807	.127	.047	.050		
공기업 지원사업6	.212	.111	.138	.142	.103	.033	.780	.148	.083	.124		
공기업 지원사업3	.264	.134	.249	.156	.172	.091	.714	.051	.207	.049		
내적통제1	.048	.052	.076	.078	.115	.054	.124	.870	-.058	.042	3.140	71.695
내적통제2	.074	.128	.251	.124	.097	.039	.109	.818	.024	.024		
내적통제4	.057	.056	.124	.031	-.020	.086	.041	.798	.190	.264		
내적통제3	.137	.102	.356	.188	-.013	-.018	.116	.707	.196	.032		
위험감수4	.307	.208	.124	.073	.128	.061	.227	.121	.748	.094	2.767	77.710
위험감수1	.205	.211	.212	.209	.326	.151	.140	.084	.709	.023		
위험감수2	.293	.108	.257	.183	.379	.059	.127	.126	.686	.048		
위험감수3	.211	.179	.327	.161	.387	.108	.110	.098	.682	.040		
모호성인내3	.059	.046	.061	.110	.045	.027	.085	.044	-.018	.884	2.397	82.922
모호성인내2	.176	.145	.028	.136	.017	.041	-.016	.058	.060	.863		
모호성인내1	.145	.178	.176	.056	.086	.103	.100	.248	.095	.725		

### 4.2.2 신뢰도 분석

<표 3>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요인	문항 수	Cronbach's α
기업가정신	혁신성	4	0.937
	진취성	4	0.939
	위험감수성	4	0.923
개인적특성	자기효능감	5	0.937
	내재적통제	4	0.875
	모호성인내	4	0.830
기회역량	기회인식	6	0.950
	기회평가	5	0.940
공기업 지원사업		4	0.914
창업의도		7	0.977

### 4.2.3 확인적 요인분석

<표 2>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요인	항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value
혁신성	a4	1				
	a3	0.93	0.907	0.034	27.526	***
	a2	1.035	0.917	0.036	28.524	***
	a1	1.042	0.861	0.044	23.626	***
진취성	b4	1				
	b3	0.957	0.915	0.032	29.488	***
	b2	0.832	0.872	0.033	25.229	***
	b1	0.964	0.911	0.033	29.062	***
위험감수성	c4	1				
	c3	1.07	0.886	0.071	15.039	***
	c2	1.095	0.932	0.069	15.827	***
	c1	1.145	0.922	0.073	15.653	***
자기효능감	d5	1				
	d4	0.998	0.884	0.045	21.965	***
	d3	0.974	0.86	0.047	20.713	***
	d2	0.863	0.86	0.042	20.721	***
내재적통제	d1	0.898	0.835	0.046	19.548	***
	e4	1				
	e3	0.705	0.795	0.039	17.886	***
	e2	0.903	0.855	0.044	20.548	***
모호성인내	e1	0.914	0.817	0.049	18.81	***
	f3	1				
	f2	1.322	0.938	0.105	12.563	***
	f1	0.673	0.573	0.069	9.73	***
기회인식	g2	1				
	g3	0.969	0.74	0.07	13.764	***
	g7	1.106	0.873	0.065	17.039	***
	g8	1.211	0.912	0.067	18.108	***
	g9	1.234	0.906	0.069	17.934	***
	g10	1.257	0.899	0.071	17.726	***
기회평가	h1	1				
	h2	0.87	0.896	0.04	21.933	***
	h3	1.003	0.893	0.046	21.743	***
	h4	1.06	0.879	0.05	21.072	***
	h5	0.875	0.828	0.047	18.752	***
창업의도	i1	1				
	i2	1.024	0.879	0.049	21.057	***
	i3	1.14	0.954	0.045	25.176	***
	i4	1.115	0.948	0.045	24.789	***
	i5	1.168	0.96	0.046	25.603	***
	i6	1.146	0.962	0.045	25.738	***
	i7	1.074	0.92	0.046	23.148	***

### 4.2.4 판별타당성 분석

<표 3> 판별타당성 분석(AVE기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내재적통제	모호성인내	인식	평가	창업의도
혁신성	*0.964								
진취성	0.566 (0.320)	*0.963							
위험감수성	0.716 (0.513)	0.64 (0.410)	*0.945						
자기효능감	0.625 (0.391)	0.505 (0.255)	0.72 (0.518)	*0.951					
내재적통제	0.305 (0.093)	0.231 (0.053)	0.389 (0.151)	0.568 (0.323)	*0.942				
모호성인내	0.144 (0.021)	0.24 (0.058)	0.236 (0.056)	0.285 (0.081)	0.211 (0.045)	*0.927			
인식	0.574 (0.329)	0.445 (0.198)	0.649 (0.421)	0.686 (0.471)	0.415 (0.172)	0.398 (0.158)	*0.938		
평가	0.477 (0.228)	0.388 (0.151)	0.552 (0.305)	0.537 (0.288)	0.338 (0.114)	0.364 (0.132)	0.79 (0.624)	*0.952	
창업의도	0.597 (0.356)	0.45 (0.203)	0.577 (0.333)	0.49 (0.240)	0.27 (0.073)	0.332 (0.110)	0.62 (0.384)	0.549 (0.301)	*0.947

\*는 AVE, ( )는 제곱값

### 4.3 확인적 요인분석

#### 4.3.1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표 4> 구조모델에 대한 적합도 지수 결과

적합도		값	판정기준
$\chi^2$	Chi-square	1821.581 (d.f=790, p=.000)	$p>0.05$
Normed $\chi^2$	$\chi^2/df$	2.306	$\leq 3.0$
RMR (S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161	$\leq .05$ ( $\leq .08$ )
GFI	goodness-of-fit-index	.763	$\geq .091$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67	$\leq .05$ ( $\leq .08$ )
NFI	normed fit index	.875	$\geq .09$
RFI	relative fit index	.864	$\geq .09$
IFI	Incremental fit index	.925	$\geq .09$
TLI	Turker-Lewis index	.918	$\geq .09$
CFI	comparative fit index	.925	$\geq .09$

\* GFI 등 적합도 지수는 일반적으로 0.9이상일 때 양호하다고 판단하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9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RMSEA(절대적합지수)나 CFI(증분적합지수)의 경우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5>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기업가정신-기회인식)

경로		계수	표준화	SE	C.R.	P	결과
가설	혁신성 → 기회인식	0.143	0.18	0.052	2.745	0.006	채택
가설	진취성 → 기회인식	0.032	0.047	0.039	0.824	0.41	기각
가설	위험감수성 → 기회인식	0.212	0.25	0.069	3.09	0.002	채택



<표 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개인적특성-기회인식)

경로			계수	표준화	S.E.	C.R.	P	결과	
가설	자기 효능감	→	기회인식	0.322	0.342	0.073	4.407	***	채택
가설	내재적 통제	→	기회인식	0.024	0.028	0.047	0.524	0.6	기각
가설	모호성 인내	→	기회인식	0.181	0.24	0.036	4.964	***	채택

<표 8>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기업가정신-기회평가)

경로			계수	표준화	S.E.	C.R.	P	결과	
가설	혁신성	→	기회평가	0.137	0.144	0.073	1.88	0.06	채택
가설	진취성	→	기회평가	0.024	0.029	0.055	0.437	0.662	기각
가설	위험 감수성	→	기회평가	0.272	0.268	0.096	2.836	0.005	채택

<표 9>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개인적특성-기회평가)

경로			계수	표준화	S.E.	C.R.	P	결과	
가설	자기효 능감	→	기회평가	0.218	0.193	0.101	2.168	0.03	채택
가설	내재적 통제	→	기회평가	0.035	0.033	0.066	0.526	0.599	기각
가설	모호성 인내	→	기회평가	0.223	0.247	0.05	4.439	***	채택

### 4.3.2 조절효과 분석

<표 12> 자유모델과 경로모델간 비교

모델	$\chi^2$	df	P-Value	CFI	RMS EA	$\Delta\chi^2$
Free 모형	3103.410	1580	0.000	0.880	0.058	
기회인식→창업의도	3107.592	1581	0.000	0.880	0.058	4.182
기회평가→창업의도	3107.409	1581	0.000	0.797	0.057	3.999

<표 13> 조절효과가 경로에 미치는 영향

경로	공기업 지원 낮음			공기업 지원 높음		
	계수	표준화	C.R.	계수	표준화	C.R.
기회인식→창업의지	0.714	0.407	6.855	0.715	0.472	6.855
기회평가→창업의지	0.176	0.147	1.858	0.240	0.190	2.095

## V. 결론 및 시사점

### 5.1 연구내용의 요약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분무역규제와 같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산업발전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산업 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창업 확률이 높은 제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았다. 이를 위해 해당분야 종사자 292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기회역량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와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핵심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기회 인식과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진취성은 기회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취성은 개인의 주도적 행동성향이고 직접적으로 창업의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간접적으로 벤처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창업가를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자기효능감, 내재적통제, 모호성에 대한 인내가 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자기효능감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는 기회 인식과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내재적 통제는 기회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개인적 신념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이나 창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모호성에 대한 인내와는 다르게 자신의 행동 혹은 성향이 결과에 미친다고 믿는 자기 신념에 해당하는 내재적 통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회인식과 기회평가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란 니즈를 충족시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창업이 발현되기 이전에 인식과 평가가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특성으로 창업을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기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의 하위변수가 창업의도

사이에 기회인식과 기회평가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확인된 가설검정 결과와 같이 진취성과 내재적 통제는 기회역량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창업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될 수 있는 특징적 요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혁신성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기회인식을 매개하는데 비해 기회평가는 매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식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음에 비해 평가는 제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창업의 발현되기 위해서는 기회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외 하위변수는 창업의도를 매개하고 있는 결과를 통해 주요 변수들이 창업 전, 후를 구분하여 비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공기업을의 기술개발 R&D 지원정책을 조절효과로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공기업을의 기술개발 R&D 지원정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재 창업생태계에 국가경쟁력을 재고시키고 창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시대적 명제임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첫째,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개인적특성에 대한 핵심요인을 원용하여 창업 이후의 다양한 성과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모형을 좀 더 확장시켜 창업 이전 단계인 창업의도에 미치는 핵심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영역을 확장하였다.

둘째,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제조산업이라는 특정 산업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함으로써 향후 기업가정신이 각 산업별로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산업별, 업종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기회인식과 기회역량을 매개변수로 각 변수간 연관성을 밝혀 본 것은 더욱 견고화된 연구모형 설계를 통해 본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개인적 특성, 기회역량을 제조업이란 특정 산업군 분야에 적용하여 해석함으로써 학문적 확장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제조산업과 연관된 기술개발의 관점에서 조절 효과를 설명하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제조산업 분야의 창업을 발현하는데 주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다만, 진취성은 실제 창업가와 창업을 의도하고 있는 잠정적 예비 창업자(Hidden Pre Entrepreneur)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요인 중 내재적 통제는 창업 이전 단계에 특정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 창업을 일으키는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서 잠재적 예비 창업자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기준적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의도 관련 연구에서 학생, 직장인, 그리고 대부분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을 표본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제조업 종사자들을 그 대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확연히 차별된다. 이는 제조산업 창업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실제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기업의 R&D 지원제도를 조절변수로 추가 분석함으로써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해석하여 향후 공기업의 지원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의도의 선행변수로 기업가정신의 핵심변수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의 연관성과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내재적통제, 모호성에 대한 인내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였는데, 그 외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점은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에너지공기업과 관련된 제조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모집단의 특성을 연구하였지만, 이는 제조산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의 특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차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제조산업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창업 전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발현하는데 있어 공기업의 R&D 지원정책에 대한 조절 효과를 조사하였다. 최근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R&D 지원정책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하였고, 기술창업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지원정책 관점에서 좀 더 다양한 표본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견비하기 위한 제조산업 창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세계 초일류 제조분야 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심층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성일(2007). *관광중소기업 소유경영자의 기업가정신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재홍(2019).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업가의 즉흥성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박재환·안승권·윤인철(2011). 가정환경 경력지향성 및 창업교육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24(4), 2499-2520.
- 백효정(2011). *여성창업 및 고용촉진제도가 창업동기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혼여성의 창업시장 확대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성창수(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민화(2018). *기업가정신 2.0*. KCERN.
- 이춘우(1999). *조직양트라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지현(2010).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산업대학교.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제2020-1호.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Start Up Statistics)*.
- 한수진(2015).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Alvarez, S. A., & Busenitz, L. W.(2001). The entrepreneurship of resource-based theory. *Journal of Management*, 27(6), 755-775.
- Ardichvili, A., Cardozo, R., & Ray, S.(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Brazeal, D.(1993). Organizing for Internally developed corporate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 75-100.
- Cantillon, R.(1775).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London: Fletcher Gyles). Trans and ed. H Higge (London: MacMillan, 1931) Dillinger.
- Chen, Y. F., & Lai, M. C.(2010). Factors Influencing the Entrepreneurial Attitude of Taiwanese Tertiary-Level Business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8(1), 1-12.
-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 Cooper, R. G.(1984). The strategy-performance link in product innovation. *R&D Management*, 14(4), 247-259.
- Cooper, A. C., & Dunkelberg, W. C.(1987). "Entrepreneurial Research: Old Questions, New Answer, and Methodolog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3(2), 49-64.
- DeTienne, D. R., & Chandler, G. N.(2004).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its role in the entrepreneurial classroom: A pedagogical approach and empirical test.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3(3), 242-257.
- Garavan, T. N., & O'Cinneide, B.(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 Part 1. *Joarnal of Earopean Inalastrial Training*, 18(8), 3-12.
- Greenberger, D. B., & Sexton, D. L.(1988). An Interactive Model for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3), 107-18.
- Gul, F. A.(1986). Tolerance for ambiguity: auditors'opinions and their effects on decision making.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16, 99-105.
- Hornsby, S., Naffziger, D. W., Kuratko, D. F., & Montagno, R. V.(1993). An Interactive Model of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 Proces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2), 29-37.
- Knight, F. H.(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Houghton- Mifflin.
- Krasniqi, B. A.(2009). Personal, Household and Business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6(1), 146-166.
- Krueger, N. F., Rei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umpkin, G. T., & Gregory, G. D.(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 21(1), 135-172.
- Man, T. W., Lau, T., & Chan, K. F.(2002).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nceptualization with focu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2), 123-142.
- McClelland, Davi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D. Van Nostrand Company, Inc., Princeton, NJ].
- McMullen, J. S., & Shepherd, D. A.(2006). Entrepreneurial action and the role of uncertainty in the theory of the entrepreneu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132-152.
- Mitchell, R. K., Busenitz, L., Lant, T., McDougall, P. P., Morse, E. A., & Smith, J. B.(2002). Toward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ognition: Rethinking the people side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93-104.
- Morris, M. H., & Lewis, P. S.(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 Morris, M. H., Schindehutte, M., & LaForge, R. W. (2002). Entrepreneurial marketing: a construct for integrating emerging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perspective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0(4), 1-19.
- Naffziger, D.(1996). Entrepreneurship: A Person Based Theory Approach.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2, 21-50.
- Rauch, A., Wiklund, J., Lumpkin, G. T., & Frese, M. (2009).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 assessment of past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761-787.
- Schwab, K.(2016).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insight report*. World Economic Forum.
- Sexton, D. L., & Bowman, N. B.(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llege, Wellesley, MA, 40-51
- Shapi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6), 83-88.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Kent. C. Sexton D. & Vesper, K, d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 J: Practice-Hall.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
- Stevenson, H., & Gumpert, D.(1985). *The heart of entrepreneurship*.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Sydney: Irwin. *Yellow Pages Australia (1996) Special report women in business*. Small Business Index, Burwood, Australia: Pacific Access.
- Van Gelderen, M., Brand, M., Van Praag, M., Bodewes, W., Poutsma, E., & Van Gils, A. (2008). Explain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mean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 Wang, C. K., & Wong, P. K.(2004). Entrepreneurial Interest of University Students in Singapore. *Technovation*, 24, 163-172.
- Zimmerman, B. J.(2000).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82-91.